

근대 초기 신문에 게재된 두십랑(杜十娘) 고사(故事) 관련 서사 연구

— <기연중절>과 <청루의녀전>으로의 개작 양상과 그 의미 —

허순우*

<차례>

1. 서론
2. 친일지의 '잡보란'과 민족지의 '소설란'
3. 자극적인 기사와 교훈적인 소설로의 개작
4. 불온함의 추동과 비약의 감행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기연중절>과 <청루의녀전>이 두십랑 고사라는 같은 이야기에 근거를 둔 개별 서사이면서 근대 신문에 실렸던 작품이라는 공통점을 근거로 하여 두 서사물의 특징을 한 지면에서 생각해본 것이다. 두십랑 고사를 성, 금전, 죽음, 화폐 등과 연관 지어 해석한 선행 연구를 통해, 어떠한 작품이 그대로 전제되지 않고 변형되어 수록될 때 드러날 수 있는 작가나 편자의 의도, 시대상 등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는, 해당 서사물이 게재된 신문의 일반적 특징과 게재된 면의 속성을 살펴보고, 이후 각 작품의 서술자가 매체의 지향이나 지면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택한 내용 전달 방식과 태도, 목표 등에 대해 분석해보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개작된 작품을 통해 읽을 수 있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 <기연중절>의 경우 이 작품이 기사 형식을 취해 남 주인공의 신의 없음과 인간의 사물화라는 조선의 문제적 현실을 오락성을 강화하여 보여줌으로써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조선 지배를 정당화 하는 친일 논리를 펴는 과정에 집중한 작품이라고 보았다. 또 <청루의녀전>은 민족 계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설 형식으로 작품을 개작했는데, 전근대사회의 지배적 논리였던 유가적 이념의 정절 관념을 내세워 기생의 행위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정절과 신의라는 문제를 버무려 독자 대중을 향해 직접적인 계도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작중 인물을 타자화하고 논리적인 비약을 감행한 작품이라고 보았다.

□ 개작, 두십랑 고사, 근대 신문, 오락성, 계몽, 금전, 정절, 타자화

1. 서론

두십랑(杜十娘) 고사(故事)는 정인(情人)의 배신에 분노한 기생 두십랑이 스스로 지니고 있던 보물을 물에 던지고 자신도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내용을 기본 줄거리 삼는 중국의 옛 이야기이다. 두십랑에 관한 내용을 처음 소개한 것은 16세기 명대 문인 송무징(宋懋澄)으로, 그는 자신의 문집 『구약집(九籀集)』에 <부정농전(負情儂傳)>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서술하였다. 이후 두십랑에 관한 이야기는 반지항(潘之恒)이 편찬한 『공사(巨史)』에 동일한 제목으로 실리기도 하고, 또 침첩외사(詹詹外史)가 편찬한 『정사(情史)』에 <두십랑>이라는 제목으로 실렸으며, 편자를 알 수 없는 『산보문원사궐(刪補文苑揶揄)』에는 <부정농(負情儂)>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또한 명말의 문인 풍몽룡(馮夢龍)은 이 작품을 개편해 『경세통언(警世通言)』에 <두십랑노침백보상(杜十娘怒沈百寶箱)>이라는 제목으로 수록했다.¹⁾

1) 두십랑 고사가 수록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이등연(“杜十娘” 고사의 서사 변천 연구 (1) -문헌 텍스트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중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14, 11, 215~222쪽.)의 글에 정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산보문원사

이 고사와 관련된 국내의 초기 연구로는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에 연재된 <청루의녀전(靑樓義女傳)>과 풍몽룡의 소설 <두십랑노침백보상>이 두십랑에 관한 동일한 고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작품이라는 사실은 밝힌 것²⁾을 들 수 있다. 이후 한 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두십랑 고사나 <두십랑노침백보상>, <청루의녀전> 등은 2000년대 들어 근대 신문 연구와 한중 비교문학 연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다시금 언급되기 시작했다.³⁾ 그 가운데 <청루의녀전> 창작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두십랑 고사의 서사 변천에 관한 연구⁴⁾와 두십랑의 비극, 기생의 한 등에 주목한 연구,⁵⁾ 그리고 풍몽룡이 두십랑 고사를 수용하여 창작한 명대 백화소설 <두십랑노침백보상>에 대한 연구⁶⁾ 등은 중문학자들이 진행한 연구로서, 두십랑 고사의 국내 전파 양상 등과 관계된 연구는 아니다. 국내에 수용된 두십랑 고사와 관련이 있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는 『한성신보(漢城新報)』에 실린 <기연중절(奇緣中絶)>과 <청루의녀전>의 관계를 짚막하게 언급한 연구⁷⁾와, <기연중절>이 <두십랑노침백보상>의 번안 작

굴(刪補文苑揠橋)은 조선후기 조선에서 간행된 서적이다. 『산보문원사굴(刪補文苑揠橋)』이 국내에서 편찬된 선집임을 언급한 연구로는 최용철(『한국소장 중국소설 자료의 발굴과 연구』, 『중국어문논총』 10, 1996, 218~221쪽.)의 것이 있다.

- 2) 이재춘, 『靑樓義女傳』> 研究 - 中國小說 『杜十娘怒沈百寶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문학』 50, 1989, 249~261쪽.
- 3) 김영민, 『근대개몽기 단형(短型) 서사문학 자료 연구』, 『현대소설연구』 1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 103~124쪽; 이병철, 『개화기 신문의 서사 수용 양상』, 『한국사상과 문화』 41,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29~66쪽; 肖大平, 『杜十娘故事의本事及在韓國日本的接受與改編』, 『중국어문학』 61, 2012, 333~350쪽 등.
- 4) 이등연(2014), 앞의 논문, 215~222쪽.
- 5) 조동매, 『性, 金錢與死亡 -對《杜十娘怒沈百寶箱》의三重解讀』, 『中國學論叢』 31, 2011, 131~146쪽.
- 6) 류미경, 『두십랑의 비극 연구 - 두십랑에 새겨진 화폐 표상』, 『중국어문학논집』 86, 2014, 343~365쪽.
- 7) 이유미, 『근대초기 신문소설의 여성인물 재현 양상 연구-일본인 발행신문 『한성신보』

임을 논하기 위해 이미 <두십량노침백보상>과 연관이 있다고 밝혀진 <청루의녀전>과 <기연중절>의 변안양상을 비교한 연구⁸⁾ 등을 들 수 있다.⁹⁾

이상의 연구들 가운데 두 편 이상의 작품을 묶어 논의한 것들은 주로 각각의 작품이 유사한 서사적 틀을 공유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해당 작품 창작의 기반을 찾고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동아시아 내에서의 두십량 고사의 파급력을 보여주고, 또 변안작들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두십량 고사의 시대적 변천과 수용 과정에서 이루어진 변개에 관한 연구들은 한 편의 고사가 새로운 작가, 새로운 시대와 만나 조용하였던 양상을 엿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 또한 이런 선행연구의 성과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기연중절>과 <청루의녀전>이 동일한 고사에 근거를 둔 개별 작품이면서 근대 신문에 실렸던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두 서사물의 특징을 함께 생각해보게 되었다. 또한 두십량 고사를 성, 금전, 죽음, 화폐 등과 연관 지어 해석한 선행 연구를 통해, 어떠한 작품이 그대로 전래되지

연재 서사물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6, 2007, 75~98쪽. 이 논문에서는 통속적 소재로서의 여성을 다루는 장에서 <기연중절>이 <청루의녀전>으로 변개되었으며, 이들 작품은 중국 명말의 소설집 『금고기관』에 수록된 <두십량노침백보상>을 변안한 것으로,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에 유행한 것이라는 서술을 간략히 하였다.

- 8) 한예민, 「<奇緣中絶>과 <靑樓義女傳>의 변안 양상 연구-中國小說 『杜十娘怒沈百寶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29, 2016, 181~199쪽. 이 논문에서는 <기연중절>과 <청루의녀전>이 풍몽룡의 작품 <두십량노침백보상>을 모본으로 삼아 변개한 것으로서, 분량 면에서 <청루의녀전>은 자세하고 복잡한 구성을 취했으며, <기연중절>은 간략하고 단순한 구성을 취한 차이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두 작품 모두 여성 인물들의 주도로 서사가 전개된다는 점을 덧붙였다.
- 9) 두십량 고사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필사본 고전소설집인 『오옥기담』을 분석하면서 신문에 실린 <청루의녀전>과 동일한 내용을 필사한 작품인 <청루의녀>를 언급한 연구(허순우, 『애국계몽기 국문단편 고전소설집 『오옥기담』의 특징과 의의』, 『한국민족문화』 58, 2016, 171~199쪽.)도 최근 이루어졌다.

않고 변형되어 수록될 때 드러날 수 있는 작가나 편자의 의도, 시대상 등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십랑 고사를 다룬 작품 가운데 국내에서 창작, 변형되어 근대 신문 매체에 게재된 서사물, <기연중절>과 <청루의녀전>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먼저 두 작품이 실린 신문의 전반적인 특징과 게재된 신문 면의 속성을 살펴보고, 이후 각 작품의 서술자가 매체의 지향이나 지면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택한 내용 전달 방식과 태도, 목표 등에 대해 분석해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에 따라 창작된 두 작품의 의미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볼 것이다.

2. 친일지의 ‘잡보란’과 민족지의 ‘소설란’

<기연중절>과 <청루의녀전>이 실린 신문은 성격이 상이하다. <기연중절>이 연재된 『한성신보』는 1895년 2월 17일부터 국내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발행하였다.¹⁰⁾ 청일전쟁 전후 본격적인 조선 침략을 목표로 삼은 일본은 자신들의 침략정책을 뒷받침 할 선전물로 『한성신보』를 창간했고, 한국 독자를 염두에 두어 국문 지면을 마련했다. 그러나 신문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일본의 침략 행위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반일감정을 자극하게 된다. 조선인 독자들이 구독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자, 신문은 외무성의 보조금 증액을 추진하여 위기를 타개하는 한 편, 편파적인 보도 태도를 시인하고, 한국인의 기호에 맞는 이담(理談)과 같은 이야기들을 한글로 실어 어

10) 김영민, 「근대적 문학제도의 탄생과 근대문학 지형도의 변화-잡보(雜報) 및 소설(小說)란의 정착 과정-」, 『사이間SAL』 5, 2008, 18쪽.

린이와 부녀자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독자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변화 도모 이면에는 기관지로서의 본래 성격과 목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¹¹⁾ <기연중절>은 이러한 성격의 『한성신보』가 조선인 독자 확보를 위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기사로 싣기 시작한 후인 1896년 11월에 지면에 소개된 글이다.¹²⁾

한편 1904년 7월, 영문판과 한글판을 병행하는 형태로 창간된 『대한매일신보』는 1905년 국한문판과 영문판으로 출간되다가, 1907년에는 영문판, 국한문판, 국문판으로 간행되었던 민족지 성격의 간행물이다.¹³⁾ 이 신문 문예면에는 독자의 흥미를 충족시켜주는 내용(한글판 중심)과 계몽적인 의식을 반영하는 서사물(국한문판 중심)이 공존하고 있었다. 『대한매일신보』는 개화기 “구국 언론의 대표주자로 애국사상을 담아”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¹⁴⁾ <청루의녀전>은 이러한 『대한매일신보』의 다양한 판본 가운데, 1906년 2월에 간행된 국한문판에 한글로 표기되어 실려 있다.¹⁵⁾

이처럼 성격이 상이한 두 매체에 두십량 고사를 공통 기반으로 하는 작품이 각각 실렸다는 점은, 두 작품의 내용적 유사점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두 작품이 지향하는 주제적 차이나 서술 태도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11) 『한성신보』의 기본적 성격과 변화에 대한 이상의 내용은 채백(『한성신보의 창간과 운용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연구』 27, 1990, 118~125쪽.)의 글을 요약한 것이다.

12) <기연중절>은 1886년 11월 30일과 12월 2일 이틀에 걸쳐 『한성신보』 잡보란에 연재되었다.

13) 김영민, 『한국 근대계몽기 ‘소설’의 정체성 연구-『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7, 2005, 110~111쪽.

14) 『대한매일신보』의 성격에 대한 내용은 전은경(『근대 초기 독자층의 형성과 매체의 역할-『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0, 2010, 45, 66쪽.)의 글을 인용, 요약한 것이다.

15) <청루의녀전>은 1906년 2월 6일부터 2월 18일까지 『대한매일신보』 소설란에 연재되었다.(2월 8일은 실리지 않음.)

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기연중절>은 ‘잡보(雜報)’란¹⁶⁾에, <청루의녀전>은 ‘소설’란에 실렸다는 점은, 이들 작품이 취했던 글쓰기 방식의 차이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잡보’라는 용어는 1881년 12월 창간된 『조선신보(朝鮮新報)』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잡보란에는 주로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잡다한 소식과 세간의 풍문을 다룬 흥미 위주의 기사가 실렸다.¹⁷⁾ 『조선신보(朝鮮新報)』를 비롯하여 이후에 창간된 『한성신보』, 『대한매일신보』 등의 잡보란에 문예물이 전혀 실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잡보 기사를 기술할 때에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글을 쓰겠다는 의식이 이들 신문의 편집자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⁸⁾

예를 들어 1896년 11월 30일 『한성신보』 잡보란에 <기연중절>과 함께 실린 <치부경사(癡婦輕死)>는 이웃 할아버지를 사모하던 과부가 그 할아버지와 다른 과부의 사이를 질투하여 사내를 찌러 하다 실패한 후 그가 잠든 방에서 목을 매 죽었는데, 법관이 사실을 심판해보아도 증거가 없어서 할아버지 등을 방면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16) ‘란’이라는 어휘는 사전에 따르면 ‘구분된 지면’을 뜻하는 말로서 ‘칸’으로 순화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근대 신문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잡보란’, ‘문예란’ 등의 용어들이 통용되어 왔으므로 본 논문에서도 우선은 기존 연구의 관습에 따른다.

17) 김영민(2008), 앞의 논문, 11쪽.

18) 이러한 점은 『독립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 등의 잡보란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독립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의 잡보란은 사실 보도를 하며 중립적인 보도 태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 기사들을 전달하려 점차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독립신문』은 초기에는 기사에 대한 논평 등을 통해 편집자의 주관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발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논평을 하지 않고 사실에 대한 중립적인 보도 태도를 지향했다.(채백, 『《독립신문》 잡보의 내용 및 보도방식에 관한 분석연구』, 『한국언론학보』 35, 1995, 5~36쪽; 채백, 『대한매일신보 잡보의 내용분석 연구』,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한국언론학회, 2004. 7, 177~196쪽 등 참조)

경성 아모 골목 안에 한 홀아비가 잇서서 바야으로 잘 된 계집 하나홀
구하거날 그 이웃이 스난 과부 호나이 그 홀아비를 위호야 다른 청상과부
하나홀 중미호야 쥬엇더니 그 홀아비와 그 과부가 두리 만나 정의가 날마다
듯텃거날 그 과부가 그 홀아비 부부가 화락호 모양을 보고 심이 분호고 뉘오
치를 니고지 못호야 그 홀아비 다려 말하야 같아디 니 처음에 다른 과부 중
미호 거시 잘못호 일로다 나와 그디가 이웃디 스라서 승품과 가세범절을
셔로 다 알 만호니 식로 으더온 과부난 되보니고 날과 갖치 스난 거시 웃더
하나 하니 그 홀아비가 같오디 임의 신인을 으더서 정의가 두텃거날 웃지
환송호리오 (중략) 그 홀아비가 쏘 듯지 아니호거날 그 홀아비 취호야 잠들
기를 기다려 방 중에 다만 신과에 쏘 십이삼 세 아히가 잇난지라 그 아히더
러 문밖으로 나가라 호고 인호야 들보에다가 목을 밧여 죽엇거날(띄어쓰기:
필자) <치부경사>

잡보란의 이 기사는 질투하는 여인의 심리를 노출하였고 인물의 발화
를 대화 형식으로 인용했으며, 사망한 여인의 시선으로 사건을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고 말하긴 어렵다. 또 “경성 아모골목”이나 “한 홀아비” 등과 같이 구체성
이 떨어지는 지명과 인명을 활용한 것도 이 기사의 사실성을 저해하는 요
소이다. 그러나 사건을 두 단에 걸쳐 압축적으로 서술하며, 인물의 외양에
관한 묘사 등을 자제하고, 법관의 범죄 심리 결과 홀아비 등이 무죄로 판
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덧붙여 실재인 듯 보이게 했다. 그리고 “~호얏
다더라.”라는 서술어로 기사를 끝냄으로써 이 내용이 취재를 통해 사실을
전달받아 작성한 것처럼 보이도록 기술하였다.

사실적 글쓰기와 허구적 글쓰기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이 기사의 경
우, 고사(故事)나 이야기의 원천 등을 지목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밝혀
지지 않아서인지 선행 연구에서도 이 기사를 문예물로 지목하지는 않았

다. 그런데 이 기사와 <기연중절>의 서술 방식(태도)을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연중절>의 경우는 그것이 두십랑 고사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문예물로 분류되고 있다.¹⁹⁾ 이처럼 취재를 통해 확보한 시의성 있는 내용임을 강조하는 기사와 허구적인 서사를 취재기사 형식으로 가공한 글이 한 지면에 게재되는 혼종 현상은 근대 초기 신문의 ‘잡보’란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보기 드문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 초기 신문의 면 구성을 논한 선행 연구에서는 신문의 소설란이 잡보란과 완전히 분리된 지면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설란이 잡보란의 하위 체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²⁰⁾ 이는 잡보에는 소설적 성격의 서사물과 사실전달 성격의 서사물을 비교적 자유롭게 게재하였고, 소설란의 경우 좀 더 범위를 좁혀 허구적 서사물을 실어야 한다고 판단했던 당시 신문 매체들의 잡보란과 소설란 활용 태도를 짐작하게 하는 지적이다. 그러나 잡보에 관한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보면, 근대 초기 신문 발행자들에게 소설과 잡보를 구분하려는 인식이 엄격하지는 않더라도 존재했던 만큼, ‘잡보’와 ‘소설’란에 각각 실린 <기연중절>과 <청루의녀전>의 서술 방식(태도)을 살펴보는 것은 근대 초기의 신문 편집자들이 지녔던 ‘소설’과 ‘기사’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이들 두 작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 김준형, 『『한성신보』 수재 고전소설의 실상과 향유 양상』, 『고전문학연구』 48, 2015, 86쪽. 김영민(『구한말 일본인 발행 신문과 한국의 근대소설-『한성신보(漢城新報)』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27쪽.)의 경우 두십랑 기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연중절>, <청루의녀전> 등을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들여온 각색작이라고 보았다.

20) 김영민(2008), 앞의 논문, 29쪽.

3. 자극적인 기사와 교훈적인 소설로의 개작

1) ‘금전’에 집중한 자극적인 기사 - 〈기연중절〉

<기연중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96년 11월 30일과 12월 2일 이틀에 걸쳐 『한성신보』 잡보란(2면)에 연재되었다. 평안도 강계군에 살던 이생과 두생이 서울의 청루에 출입하던 중 이생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기생과 백년가약을 맺게 된다. 그러나 이생은 기생을 속신할 자금마저 두생에게 빌릴 정도로 빈한하다. 기생을 데리고 집으로 향하던 이생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기생과의 결연에 대한 타인의 시선 등을 염려하던 차, 평양 대동강에서 부유한 상인 오씨를 만나 수 천 냥을 받고 기생을 팔게 된다. 이생과 오씨의 거래를 알게 된 기생은 이생을 편 오씨와 인정과 의리 없는 이생을 모두 책망한다. 그리고 감추어두었던 누만금(累萬金)의 보물을 모두에게 보인 후 대동강 물에 던지고는 자신도 강물에 빠져 죽는다. 이러한 광경에 할 말을 잃은 이생과 오씨는 각각 길을 떠나는데 이생은 자신의 집에 채 도착하지 못하여 죽는다. 하루는 이생의 벗 두생이 배를 타고 대동강에 나왔다가 꿈속에서 죽은 기생을 만나게 된다. 기생은 자신의 속신 비용을 흔쾌히 빌려주었던 두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전에 자신이 물속으로 던진 보물을 가져가라고 한다. 잠에서 깬 두생이 다음날 물속에서 수만금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지게 되고, 그는 기생을 위해 제문을 짓고 제를 지낸다.

이상이 <기연중절>의 내용인데, 『한성신보』가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면서 취한 태도는 사실보다 기사처럼 사건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기연중절>의 작가는 동아시아에 널리 퍼져있던 두십랑 고사를 차용했지만 그러한 점을 드러내지 않고 서사의 기본 배경을 국내로 설정하여 당시 주변에서 벌어진 사건처럼 내용을 꾸민다. 평안도 강계군에 사는

이생과 두 생, 서울 기생, 그리고 고향을 알 수 없는 부유한 상인 오씨 등을 등장인물로 내세우는 것이다. 또 인물에 대한 주관적인 묘사를 자제하고 사건을 압축적으로 전달한다.

① 평안도 강계군의 두십과 니싱이라 하는 사름 둘이 잇스되 서울노 올노와 셔 두류호여 구스를 흐라 할시 두십은 지물이 만코 니싱은 형세 극빈호지라 니싱이 절친한 기싱 하나 잇스되 니싱이 간혹 무료할 썸면 두십을 다리고 한가지로 그 기싱의 집의럴 가서 종종 놀더니 그 기싱 그 니싱에 형세가 빈호한 줄 아노 그러호노 서로 경이 김피 들었노지라 (띄어쓰기: 필자) <기연중절>

② 그 중에 성명이 이갑이고 자가 자선이며 절강 소흥부 출신인 학생이 있었다. 이 포정의 셋째 아들로 유독 나이가 많았다. 어려서부터 향학에서 독서하였으나 과거에 오르지 못하여 관례에 따라 복용에 들어왔다. 북경 국자감에서 공부하던 중 동향친구 유우춘 감생과 교방사의 기방을 들락거리다가 이름난 기생을 만났다. 그 기생의 성명은 두미이며, 향렬이 10번째여서 기방에서는 모두 두십량이라고 불렀다. 그 생김새는 아래와 같았다. 온몸은 고상한 아름다움이 풍기고, 애교스러운 향기가 발하며, 두 눈썹은 먼산의 푸름을 그린 듯하며, 두 눈매는 가을의 맑은 물처럼 빛나네. 얼굴은 연꽃같이 아름다워, 분명 탁문군이라네. 입술은 앵두처럼 작고도 붉어, 어찌 백가번소만 못할까. 가련하게도 이 티 없이 맑은 옥. 기생집으로 잘못 떨어졌네. 그 두십량은 13세 때 손님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 19세에 이르기까지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귀족의 자제들을 맞았는지 모른다. 모두가 사랑에 뉘이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두십량노침백보상>²¹⁾

21) <두십량노침백보상> 인용문은 “풍몽룡 저, 『三言 20 選 譯註』, 장영 편역, 송산출판사, 2011”에 실린 번역을 토대로 하여 내용을 다듬었다. 이후 인용하는 <두십량노침백보상>의 번역문은 모두 같은 책을 활용한 것이다.

위 인용문 ②는 두십량 고사를 기반으로 하여 창작된 풍뎡이의 소설 <두십량도침백보상>인데, 작가는 남성 주인공 이갑의 처지에 관한 서술과 더불어 여성 주인공 두십량의 인생 내력과 그녀의 외양에 대한 시적 묘사를 곁들이고 있다. 반면 인용문 ① <기연중절>의 작가는 같은 내용을 전달하되 부연설명이나 외양에 관한 주관적 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축약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 태도는 <기연중절> 2회 분량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던 <치부경사>와 마찬가지로 글의 마지막 문장을 서술할 때, 실재했던 사건을 취재하여 기록하는 형식을 이 글에서도 취하고 있다. “이에 제문을 지어서 제 지녀여 줄식 그 축스가 경히 처연히더라 더라.”라는 간접화법식 마무리는, 필자 자신이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두생이 기생을 위해 제문을 지어 제를 올리는 현장에 동참한 누군가의 눈을 빌어 사건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인물의 발화를 직접 인용하고,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며, ‘꿈’이라는 환상적인 요소를 서사 전개 도구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실재하는 사실이 아닌 중국 고사를 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성신보』 편집자가 이 이야기를 소설란이 아닌 잡보란에 두었다는 것은 <기연중절>을 흥미로운 실제 사건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다는 편집자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기연중절>의 이러한 글쓰기 방식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도 허구를 기사처럼 꾸민 것²²⁾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기연중절>을 게재할 당시 『한성신보』가 1면과 2면에 모두 서사물을 실으면서도 1면에는 “조선인의 기호에 맞춘 고전소설을 통해 신문사의 주지를 담아내”는 목적성을 지닌 작품을 싣고 2면에는 “오락을 위

22) 김준형(2015), 앞의 논문, 86쪽.

한 목적에서만 만들어진” 오락적인 내용의 서사물을 읽고 싶어 했다²³⁾면, 2면에 실린 <기연중절>에서 찾을 수 있는 오락적 요소는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기연중절>이 ‘금전(金錢)’이라는 요소에 이야기의 초점을 맞추으로써 독자의 흥미에 부합하는 오락성을 이끌어내려 했음에 주목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두십랑노침백보상>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는 이 작품의 흥행 요인을 성(性)과 금전, 그리고 죽음으로 꼽았다.²⁴⁾ 이들 세 요소는 부각된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두십랑 고사에도 들어 있는 공통 요소이다. 그런데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들 세 가지 중에서도 <기연중절>의 작자는 ‘금전’을 부각하여 서술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²⁵⁾

선행연구²⁶⁾에 따르면, “문학의 장에서는 ‘돈’이 이미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힘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아 그것이 권력 획득의 방편이 되는 ‘성공담’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돈’의 결핍으로 인한 고통과 불행, 그것이 물신화 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폐해, 경제 가치와 윤리 가치의 갈등과 혼동에 이르기까지 다기한 차원에서의 담론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조선후기 ‘야담’은 ‘돈’에 대한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돈의 영

23) 김준형은 『한성신보』에 실린 서사물이 처음에는 목적성(1면)과 오락성(2면)이라는 두 개의 속성을 기준으로 나뉘어 실리다가, 독자들의 기호에 따라 오락성이 강한 작품 쪽으로 경사되고, 급기야 2면의 오락적 성향의 서사물이 1면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1897년 1월 12일 고정된 ‘소설’란이 1면에 생겼고, 이 란은 목적성보다는 일상성과 오락성에 초점을 둔 작품들을 실는 란이었다고 분석했다.(김준형(2015), 앞의 논문, 83~91쪽)

24) 조동매(2011), 앞의 논문, 131~146쪽.

25) <기연중절>에 성이나 죽음 등과 같은 자극적 요소가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두십랑 고사에 이미 성, 죽음, 금전이라는 요소가 들어있었던 만큼, 이 고사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들은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압축적으로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특히 ‘금전’의 문제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26) 최기숙, 『돈의 윤리와 문화 가치 - 조선후기 서사 문학의 경제적 상상력』, 『현대문학의 연구』 32, 2007, 183쪽.

향력을 재현하려 하였다.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금전’(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선 후기 사람들의 관심사로 부상한 것이다. 우연한 기회이든 노력의 결과이든 누군가가 부를 축적하는 이야기, 혹은 누군가가 불행하게 부를 잃게 되는 이야기 등 금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은 금전의 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솔깃한 소재이다. <기연중절>의 작자 또한 ‘돈’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에 주목하여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앞서도 말하였듯이 <기연중절>은 마치 실재했던 사건을 전달하듯이 서술하는 태도를 취했는데, 그 과정에서 ‘성’이나 ‘죽음’과 같은 흥미소는 수십량 고사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활용하고 ‘금전’의 문제에 더욱 집중한 것이다.

앞서 인용한 예문 ㉠에도 나타나 있듯이 <기연중절>의 작자는 등장인물인 두생과 이생을 소개할 때 외양 묘사나 가게에 관한 설명 없이 그들의 빈부격차만을 서술한다. 또 기생과 이생의 관계를 말할 때도 기생이 이생의 빈한함을 알지만 정이 들어 가약을 맺는다고 서술한다. 기생어미가 기생이 속신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보인 반응도 “니싱이란 사름이 무슨 돈을 가지고 속신을 하겠느냐”였다. 기생어미가 속신비의 반을 감해주겠다는 내용²⁷⁾, 기생이 이생에게 속신 비를 구하라고 재촉하는 내용²⁸⁾, 이생이 속신 비를 간절하다가 두생에게 빌리는 내용²⁹⁾, 기생의 친구들이 속신하고 떠나는 기생에게 패물로 정을 표하는 내용³⁰⁾, 대동강

27) 만일 니싱이 속신히여 곶 지경이면 니 맛당이 그 가본을 받은 감하여 주겠다 하니 <기연중절>

28) 니싱더러 일러 곶아디 주인이 그디의 가논 혼 거설 읍슈이 녀겨셔 나의 속신히 할 돈을 받은 감하여 준다 하니 청큰디 돈 몇 냥을 구쳐히여셔 나를 속신히야셔 갖치 가서 평싱을 살즈 하니 <기연중절>

29) 니싱이 마음은 비록 반가우니 슈중의 척푼이 읍논지라 두신히에게 간절히여 곶아디 니가 아모 기싱과 서로 친밀함은 형도 임의 아논 바이라 이제 슈신히원만 가졌시면 그 기싱을 속신히여셔 갖치 가겠노라 <기연중절>

30) 기싱의 친구들이 서로 작별함을 창연이 여겨셔 서로 더부러 전별찬치를 비설하고 각

에서 부상 오씨를 만나 이생이 돈 몇 천 냥에 기생을 팔기로 약조하는 내용³¹⁾,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기생이 그간 감추어 두었던 재물을 보란 듯이 강물에 내던지고는 자결하는 내용³²⁾ 등 <기연중절>은 짧은 분량 안에서 끊임없이 돈에 관해 이야기 한다. 급기야 작품의 마무리도 기생 속신 비를 빌려주었던 두생이 보물 상자를 얻게 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 이생과 기생의 진솔한 사랑의 감정이나 기생의 자결에 대한 다른 인물들의 감정을 서술하는 데에는 거의 지면을 할애하지 않는다.

기침이 몸을 강중의 더져서 죽으니 니싱과 오씨 두 사람이 무연이 아모말도 못하고 가더니 니싱은 제 집을 다 못가서 중노의셔 분울한 병으로 죽고 오씨는 공연히 돈 괴천냥만 허비했더라. <기연중절>

인용문은 기생이 자결한 이후 이생과 오씨의 태도와 상황에 대해 서술한 것인데, 신문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 5줄에 불과한 분량이다. 게다가 내용마저도 기생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배신에 대한 후회 혹은 인간적인 미안함이 아니다. 이생은 재물과 미인을 놓쳐 분울해하다가 죽었고, 오씨는 괜히 돈만 잃게 되었다는 서술은, <기연중절>이 전적으로 ‘금전’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그리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

각 픽물노 정표를 하며 은냥으로 노비를 주는지라 <기연중절>

31) 그덕의 스세를 생각하건더 부모시호의 형세가 간한 중 그런 기침을 다리고 가면 집안의 걱정이 될 거시오 몸의 누가 될 거시니 너 말대로 괴천 냥을 받고 너게 그 기침을 팔면 서로 조할 날이니 엇더하냐 혼 즉 니싱이 마암의 돈 마니 준다든 말을 욱심하나 또 일변으로 그 기침과 경이 잇심으로 참아 웃지하지 못하야 근심으로 일을 숨겨날 <기연중절>

32) 일장 탄식하고 이에 그 형장의 감초아 가지고 오던 직물을 너여서 모단 사람을 뵈이니 금언경보가 누만금엇치가 되는지라 니싱을 가리치며 말하되 이거시 저 오씨의 몇 천 냥 주마 혼 직물과 엇더하뇨 하고 몬져 그 금은 등속을 물 가온디 던지고 기침이 몸을 강중의 더져서 죽으니 <기연중절>

준다. 이와 같은 내용적인 초점화는 <기연중절>이 많은 지면을 활용하지 않고 압축적, 사실적인 기사 전달 형식의 글쓰기를 취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만족시키려 했다는 점과도 잘 맞물리는 점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연중절>을 ‘금전’에 집중하는 자극적인 기사의 모습으로 가장한 서사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2) ‘열녀행실’과 ‘의리’를 강조한 교훈 소설 -〈청루의녀전〉

<청루의녀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06년 2월 6일부터 2월 18일까지 『대한매일신보』 ‘소설’란에 연재된 글이다. 장안 성내에 살던 서생(書生) 배생이 호조 돈 오천 냥을 빌려서 중국으로 장사를 하러 갔다가 그곳 청루에서 기생을 만나 모든 돈을 허비한 후 기생을 아내로 맞아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재산을 탕진하고 호조 돈을 갚지 못할 신세에 처한 배생이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염려할 즈음 압록강에서 만난 부유한 상인 이생이 여인의 외모를 보고 반하여 배생에게 만금을 주고 여인을 사기로 한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 기생에게 말을 못하여 주저하던 차, 내막을 알게 된 기생이 순순히 배생의 뜻에 따르는 척한다. 만금과 기생을 바꾸기로 한 날 기생이 뱃전에 올라 배생을 나무라고 자신의 사람 보는 눈 없음을 자책하며 강물에 몸을 던진다. 며칠 후 기생의 혼령이 압록강 뱃사공의 꿈에 나타나서는 자신의 시신을 건져 장사지내주고 보물을 가져가라고 한다. 뱃사공이 기생의 시신을 건져 장사지내지만 보물의 정체를 알지 못해 궁금해 하던 차, 한 관인이 나타나 여인이 지니고 있던 주머니 속 검은 암소 그림을 중가(重價)를 주고 산 후, 그 그림이 물을 묻이면 화수분처럼 소를 만들어내는 신비한 물건임을 뱃사공에게 알려주고 떠난다. 이어서 서술자는 배생의 오활함과 비루함, 기생의 절개 있음을 칭찬하며 이

야기를 접하는 경박자제들과 창가소부들을 경계하는 말로 마무리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청루의녀전>은 『대한매일신보』에 총 11회 연재되었는데, 그 중 1906년 2월 17일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설’란에 실렸다. 2월 17일의 경우에는 ‘잡보’에 이어 특별한 구분 없이 이 작품이 게재되었는데, 이는 편집자가 <청루의녀전>을 소설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보다는 해당 면 전체의 지면이 부족하여 ‘소설’이라는 표기를 따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굳이 ‘잡보’, ‘광고’, ‘통신원’ 등의 ‘란’ 구분은 그대로 살려둔 채, ‘소설’란 표지를 없앤 것으로 보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소설’을 ‘잡보’의 하위 범주로 보기도 했던 당대인들의 인식, 혹은 소설을 독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거두고자 했던 효과 등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를 남긴다.³³⁾

③ 이전 장안성 너 시댁 중에 비싱이라 하는 스람이 잇스니 그 사람은 방년이 이십오 세에 풍치가 미려하나 마암은 츠루하야 것호로는 관후하고 속으로는 졸직한 고로 사람들이 모다 비단쥬면이에 기똥이라고 지목하더니 기후에 각국 물화를 교환하여 상리를 도모함츠로 호조에 돈 오천 량을 청득하야 가지고 여러 상고들과 동행하야 중원 북경에 들어간 즉 인물의 변화함과 가택의 장려함은 실노 심목을 놀리는지라 스스로 싱각하되 이제 너는 히 우편방에 일기 빈한셔심으로 이러한 데성문물의 변화함을 엿더 구경하고 또호 나의 아름다온 풍치와 다슈호 은즈가 잇슨 즉 족히 남아의 평싱 썯을 맞치리로다 하며 말세 의지하야 두로 단이며 구경할세(띄어쓰기: 필자) <청루의녀전>

33) 과도한 의미 부여일 수도 있으나, <기연중절>과 <청루의녀전>의 글쓰기 방식을 비교해보면, 잡보라는 큰 범주 안에 사건 기사와 허구적 문예물을 함께 실었던 신문들이 점차 기사와 소설을 구분하려 하며 가졌던 소설에 대한 인식이나 과도기적 글쓰기의 한 양상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생각해볼 문제로 남긴다.

위 인용문 ③은 앞서 소개한 인용문 ①, ②와 같이 남 주인공을 소개하고 그 인물이 기생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서술한 것이다. 작자는 두십랑 고사 및 중국 문예물에서 절강성 출신으로 이야기되던 남 주인공을 장안성에 사는 배 생으로 설정한다. 이는 <기연중절>과 같이 남 주인공을 조선 사람으로 설정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작중 사건에 대한 거리감을 일정 정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일 수 있다. 남 주인공을 조선인 배 생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작자는 남 주인공이 태학(북웅)에서 공부하다가 우연히 기생과 어울리게 되었다는 <두십랑노침백보상>의 내용과 달리, 무역(貿易)을 하러 중국 북경에 갔다가 기생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기연중절>은 풍몽룡의 소설 <두십랑노침백보상>의 “기본 서사구조만 차용해 간략하고 단순한 구성”을 취한 작품이고 <청루의녀전>은 <두십랑노침백보상>을 변안한 것이라고 보았다.³⁴⁾ <두십랑노침백보상>이 『금고기관(今古奇觀)』과 『경세통언』에 모두 실려 있고, 이 두 편의 서적이 18세기에 이미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있었으므로³⁵⁾ <기연중절>과 <청루의녀전>의 작자가 <두십랑노침백보상> 이야기를 토대로 하여 작품을 창작, 개작했을 가능성도 분명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십랑 고사를 다룬 여타의 문헌들 또한 존재했고, 그 중에서도 『산보문원사골』의 <부정농>과 같은 글이 이미 조선에 전래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루의녀전>을 <두십랑노침백보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논할 당위성은 없다. 따라서 <두십랑노침백보상>, <부정농>, 그리고 <청루의녀전>보다 앞서 신문 매체에 실린 <기연중절>까

34) 한예민(2016), 앞의 논문, 184~194쪽.

35) 『금고기관』과 『경세통언』은 윤덕희의 『소설경람자(小說經覽者)』(1762)에 서명(書名)이 쓰여 있으므로, 적어도 1762년 이전에는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적들이다. (정영호, 민관동, 『중국 백화통속소설의 국내 유입과 수용 -〈三言〉, 〈二拍〉, 〈一型〉 및 〈今古奇觀〉을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54, 2013, 228쪽.)

지 모두 고려하여 <청루의녀전>의 서술 상 특징을 살펴본다면, 이 작품은 <두십랑노침백보상>보다는 작품의 시공에 관한 서술이나 인물 소개가 간단하며 삽입시문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등의 장치를 활용하지 않은 면이 드러난다. 반면 <부정농>, <기연중절>과 비교했을 때는 비록 설명적이거나 요약적이기는 해도 인물에 관한 묘사와 수식이 가미되어 있고, 일정 부분, 장면에 대한 확대 서술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용문 ③의 남주인공 묘사와 인용문 ①의 남주인공 묘사를 비교해보면 <청루의녀전>의 것이 더 구체적이고 수식이 가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농>에서도 만력 연간 절강성 동쪽에 살던 안찰사의 아들 이생이 태학에서 공부하다가 교방의 미녀를 만나 돈을 탕진하니, 기생 어미가 그가 자주 기생 찾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말로 간략히 남주인공을 소개³⁶⁾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청루의녀전>의 배생에 관한 묘사는 자세하다.

이 외에도 <기연중절>을 비롯하여 여타 두십랑 고사 관련 서사물들과 <청루의녀전>을 비교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이 작품의 차별화된 지점은 아래와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배생에 대한 인물 묘사뿐 아니라, 여인이 청루에서 기생으로 생활하게 된 내력을 구체적으로 부연하고³⁷⁾, 배생과 여인이 서로에 대해 갖는 호감의 마음을 대화를 통해 묘사³⁸⁾하였다. 또

36) 萬歷間 浙東李生 系某藩臬子 入資游北雍 與教坊女郎杜十娘情好最殷 往來經年 李資告匱 女郎母頗以生類來爲厭 <負情儂>, 『刪補文苑揀橘』, 장서각디지털 아카이브

37) 첩이 근본 양가녀자로 부모를 낳는 중에 일코 로상으로 바장이며 호국하다가 인혁이 주인 창모의게 슈양흔 바 되어 첩의 나히 겨오 십습 세에 일오미 자못 결칙의 일흔이 잇는지라 난초의 향긋로운 풀이 흑여 봉첩의 탐향흔 폐가 잇슬가 염려하야 천금의 늑흔 갑스로 방을 걸고 일빅창녀의 우혜 놓히 거흔니 그 갑시 너무 티과흔 연고로 비상에 일점 잉혈을 보존하엿다가 금일에 비로소 랑군을 만난지라 <청루의녀전>

38) 빅십이 그 미인을 디하야 체연이 눈물을 흘니며 왈 우리 양인의 은경은 비록 무궁하

‘속신’이라는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금전의 문제보다는 헤어짐에 대한 안타까움이 부각되게 서술을 다듬었다.³⁹⁾ 특히 배생이 여인을 부유한 상인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장면에서 배생과 여인 사이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묘사⁴⁰⁾, 배생의 무정함에 대한 여인의 원망과 자탄⁴¹⁾ 등은 <청루의녀전>이 두십량 고사를 수용하여 재창작하면서 주제적으로 강조하고, 서술적으로 공을 들이고자 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청루의녀전>이 <부정농>이나 <기연중절>에 비해 허구적 상상화에 신경을 쓴 작품이고, <두십량노침백보상>과는 차별되는 지점을 강조하고자 했음⁴²⁾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상식과 통념이라는 미명 아

나 힝탁이 임의 뷔엿스니 오죽 낭즈는 천만보중허라 나는 일로쫓츠 이별호노라 혼디 미인이 일오러 이 말슴이 잇슬 줄 아온지라 첩의 회포를 말호고자 호면 말이 심이 장황호나 맛당히 그 디강을 배풀어 랑군의 불상이 여짐을 구허리이라 하고 왈 <청루의녀전>

39) 첩이 이제 스람을 초치미 습강의 엄흠이 일우이고 오료의 중흠이 갓초인지라 바라나니 모친은 첩으로써 생각지 마압고 만세에 무강호소서 혼디 그 창모가 쏘호 만류홀 말이 업고 근처에 잇는 청루미녀들이 모혀와서 서로 전벌호며 칙칙청선호여 왈 이 스람의 정정유한호 조형이 진실로 우리 등의게 비홀 바 아니라 호고 각각 금뵝으로써 서로쥬되 일일이 스투코 밧지 아니하고 <청루의녀전>

40) 빙싱이 부득이호야 머리를 숙이고 자리를 손으로 쓰드며 왈 저 사람이 낭즈의 조식을 보고 만금어치 보화로 밧고고져 호되 너는 당초에 그 쫓이 업노라 미인이 이 말을 듯기를 다하미 홀연 량협에 불근 밧치 나며 쌍누중황하야 곳길을 적시며 허희장탄 왈 명도의 궁흠을 가히 억지로 홀 슈 업도다 호며 누물을 거두고 도로혀 깃버호는 체 호나 우스며 왈 빈천호 자를 밧이고 부귀한 남즈를 좃침이 나에 소원이나 인물을 디미홀이 가히 호소치 못할리라 명일 아참 발선홀 썩에 여러 사람을 디호야 흥성을 명칙히 하야 피츠간 후회가 업게 하라 <청루의녀전>

41) 미인이 선두에서 떨니 빙싱더러 일너 왈 금보는 업다가도 잇거니와 은정이야 쓴엇다가 다시 이을손야 너가 눈이 잇셔도 동자가 업셔 양의 가죽을 범의 가죽으로 보아쓰니 이는 도시 나의 박명호 연고라 다시 누를 원망호리요마는 당초에 중로에서 길을 고칠 줄 알이든들 엇지 천 리에 서로 조츠미 잇스리오 도라보건디 무엇시 한 번 죽기가 열려와 랑인의게 몸을 허호리오 <청루의녀전>

42) 선행연구에서는 <두십량노침백보상>을 화폐 경제적 현상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는

래 감춰져 있던 삶의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며 일상의 진부함 때문에 마비되어 있던 삶의 감각을 회복”⁴³⁾시키고자 노력했던 본격적인 근대적 의미의 단편소설과는 거리가 먼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단편소설(혹은 단형서사)⁴⁴⁾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존재한다. 그것은 독자들에게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려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청루의녀전>에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저 비싱으로 말하게드면 당초에는 어이 그리 오할하고 나중에는 어이 그리 비루하고 만일 비싱으로 하야금 당초에 뜻을 변치 아니호였든덜 그런 보비와 그러케 아름다운 스람을 모다 보전호았슬 티오 또호 청춘녀즈로 천츄에 원혼이 되지 아니호았슬지라 스람의 어리석고 무정함이어 눈압헤 보이논 저근 리를 취호야 큰 의리를 저바리논 지 엇지 고급에 비싱뿐이리오만은 비싱의 일은 죽히 의론홀 것 업거니와 그 미인의 잡은 바 마음과 호호 바 일은 가히 효측홀 만호기로 근일 경박즈데들과 창가소부들에게 디호야 경고하노라
 <청루의녀전>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근거로는 풍몽룡의 이 작품이 명대 상업 경제가 최고로 번영을 누리던 시대를 배경으로 삼아 그 즈음 창작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화폐’와 상거래, 교환 등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음을 들었다. 또 정의에 최상의 가치를 두고 죽음을 택한 두십랑의 모습을 통해 봉건예교의 허위를 냉소하고 교환가치가 중시되는 상업시대의 면모를 보여주는 비극이라고 평가했다.(류미경(2014), 앞의 논문, 343~365쪽 참조.)

43) 박현호, 『한국 근대소설사에서 단편양식의 위상 - 단편의 양식적 특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16, 2000, 246쪽.

44) 선행연구에서는 근대 초기 단형서사의 특징으로 “자주나 계몽, 개화 등의 주제의식에 경도되어 구체적인 인물들의 일상을 담아내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일방적인 주제 전달식 말하기의 자제와 같은 목적의식의 후퇴를 근대 서사로 나아가는 핵심 요소로 규정하였다.(서은경, 『1900년대 “短篇小說”과 1910년대 “단편소설”에 대한 비교적 고찰-계몽의 후퇴와 주제의 전면화』, 『현대문학의 연구』 31, 2007, 223쪽.)

『독립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등과 같은 근대 초기 신문에 실린 서사물이 계몽의 방편으로 활용되었으며, 계몽적 성향을 띠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것이 이 시기 소설의 중요한 정체성일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지적⁴⁵⁾처럼 <청루의녀전>의 서술자는 배생의 무정함을 비판하고 기생의 집심(執心)을 기리는 직접적인 발화를 통해 독자를 가르치려 한다. 작품의 마지막 문장은 이 작품이 경박자제들과 창가소부들에 대한 경고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독자보다 우월한 작자를 전제로 하여 개인이 아닌 집단 전체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계몽의 발화 방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⁴⁶⁾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청루의녀전>을 ‘열녀행실’과 ‘의리’를 강조하는 계몽적인 교훈 소설로 보는 것이다.

4. 불온함의 추동과 비약의 감행

그렇다면 수십량 고사를 개작하여 근대 신문에 게재한 이러한 작업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수십량 고사는 송무징이 <부정농전>이라는 제목으로 창작하여 소개한 이후 개작자에 따라 크고 작은 변화들을 보여 왔다. 송무징은 이 고사를 실재했던 이야기처럼 ‘전’이라는 명칭을 붙여 소개하면서 애정의 배반자 이생을 질책하는 데 공을 들였다면, 침침외사는 <두십량>으로 제목을 바꾸면서 작품의 초점을 이생에서 두십량으로 변경하고자 했다. 또 반지항은 <부정농전>을 그대로 옮기되 이생과 두십량의 사랑을 방해한 ‘신안 사람’

45) 김영민(2008), 앞의 논문, 22~33쪽.

46) 서은경(2007), 앞의 논문, 227쪽.

을 ‘젊은이’로 옮겨 굳이 ‘신안’이라는 지역을 부각하는 부담을 피하려 했다. 또 첨침외사의 <두십량> 등에서는 오히려 신안 사람의 언변과 능력을 칭찬하면서 두십량이 이생보다 신안 사람을 먼저 만났더라면 불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을 첨가하기도 했다. 또 풍몽룡은 <두십량노침 백보상>을 통해 화폐적 존재에 머무른 두십량의 비극을 그리면서 아울러 명대 상업경제의 비약적 발전이 신흥계층의 성장이나 새로운 시대로의 변모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⁴⁷⁾

이처럼 개작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중국 내에서 수용, 개작되던 두십량 고사는 <기연중절>이라는 짤막한 잡보 기사로 근대 초 우리나라에서 재탄생된다. 그런데 이 작품은 정인에게 배신당한 기생의 비극을 금전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핵심화하여 개작하는 과정에서 신분 차별의 문제나 정의의 문제 혹은 화폐 경제의 폐단, 상품으로 전락한 인간의 문제 등 그 어떤 것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 대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만을 압축적으로 담아 그것이 마치 조선에 실재하는 일상의 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주는 방식을 취했다.

『한성신보』의 ‘잡보’란에 실린 ‘결혼과 부부생활’ 관련 기사들은 “결혼과 부부생활의 문란한 지점을 담아냄으로써 ‘문제적 조선’을 재구성”⁴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기사들은 “성과 사생활이라는 개인의 내밀한 일상을 풍속과 문화의 차원에서 개량해야 할” 대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풍속 개량 등의 정책적 정당성에 대한 경험적 논거를 제

47) 두십량 고사의 개작 양상에 관하여는 이동연(2014), 앞의 논문, 215~222쪽; 류미경(2014), 앞의 논문, 343~365쪽 참조.

48) 최기숙, 『‘사건화’ 된 일상과 ‘활자화’ 된 근대: 근대초기 결혼과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한성신보』(1895-1905) ‘잡보’란이 조명한 근대초기의 결혼생활 스케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 2014, 235쪽.

시”⁴⁹⁾하는 것이다. 『한성신보』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짚어낸 선행 연구에서는 ‘잡보’에 실린 기사들이 모두 ‘취재 기사’인지 명확하지는 않다는 점을 의심하면서도 잡보에 수록된 이와 같은 종류의 기사들이 전근대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하층민의 실재하는 일상을 기사의 소재로 삼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이 사건화 되는 문제⁵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기연중절>은 조선 사회에 실재하는 문제가 아닌 것들까지 마치 오늘의 문제인 것처럼 기사화 하여 게재함으로써 조선을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의도했던 당시 신문의 현실 왜곡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한성신보』는 소설란에 한국인의 일반적인 기호에 부합하는 내용을 실어 부녀자와 어린이를 계도하며 ‘잡보’란에는 한국인의 기호에 맞는 작품을 수록하되 적절하게 친일적으로 개작할 필요성을 느껴 한국인 탐방원을 채용했는데⁵¹⁾ <기연중절>의 기사화는 ‘잡보’란의 기사가 순수한 취재물로만 구성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기사들이 단 순히 흥미를 끄는 재미있는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은, ‘의도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성신보』는 염정류나 회음류로 분류되는 작품들을 ‘소설’란에 수록하여 조선의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민족정신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으며, 범죄, 치정, 화재, 지진, 기담 등 반드시 보도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독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었던 읽을거리를 적극 활용했던 일본 소신문 ‘잡보’ 운영의 방식을 수용⁵²⁾하였다. 물론 서사를 통해 흥미를 추구하고 인간의 본성이나 일상을 들여다보려는 노력들이 조선

49) 최기숙(2014), 앞의 논문, 238쪽.

50) 최기숙(2014), 앞의 논문, 238쪽.

51) 김준형, 「근대 초기 신문의 야담 활용 양상과 고전소설의 변모 - 『한성신보』를 중심으로 -」, 『고소설연구』 37, 2014, 14쪽, 26쪽.

52) 김영민(2006), 앞의 논문, 16쪽, 28쪽.

후기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한성신보』가 수집, 취재, 게재했던 다양한 기사들이 조선의 문제적 실상을 속속들이 보여주려 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성신보』에 게재된 <김씨전>을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이 작품은 전 시기 야담을 그대로 수록하고 권선징악적인 후일담을 덧붙인 사례로서 오로지 흥미와 오락성만을 목적으로 삼았을 뿐 친일 의식을 주입하겠다는 의도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주체적이었던 여인이 수동적인 인물로 변모하고 주변의 시선에 떠밀려 자살을 하게 된 것 또한 오락성의 극대화라고 보았다.⁵³⁾ 그러나 남편을 죽인 중과 간통하던 며느리가 김씨 성을 가진 한량에게 사실을 들켜 모든 것을 실토하고 자결했다는 내용의 전대 야담을 굳이 선택하여 근대 신문에 게재하는 취택 행위 그 자체에 담긴 편집자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취재 기사를 가장한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기연중절>은 금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과 죽음이라는 자극적인 요소를 모두 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나약한 인물 이생을 통해 ‘왜소한 남성’⁵⁴⁾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킨다. 게다가 앞서도 언급했듯이 기생의 죽음을 대하는 이생과 부상 오씨의 태도를 오로지 행운을 놓친 것에 대한 울분이나 괜한 돈 낭비에 대한 후회의 형태로 변형시켜 제시한다. 성(性)이나 정(情)에 관한 가장 내밀한 영역의 문제를 문란하고 문제적인 것으로 그리면서, 그러한 문제에 동반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같은 것들을 소거시켜 버린 것이다.⁵⁵⁾ 이런 특징들은 취재

53) 김준형(2014), 앞의 논문, 37~38쪽.

54) 김찬기, 『한성신보』 소재 야담계 기사(記事)의 서술 시각과 인물 형상, 『우리문학연구』 38, 2013, 376쪽.

55) 이는 <두십랑노침백보상>에서 해당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태도와 비교하면 그 특징이 더 잘 드러난다. <두십랑노침백보상>에서는 적어도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개

기사라는 외피를 씌워 두십량 고사를 <기연중절>로 개작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의 작자가 지녔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언론 매체가 “불온한 역할을 추동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음”⁵⁶⁾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루의녀전>으로의 개작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의미들은 무엇일까? 우선 이 작품은 『한성신보』와 같은 친일지가 활용했던, ‘목적성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글쓰기’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신진사문답기>나 <콕어사전>과 같은 문답체 소설을 통해 『한성신보』가 오락성과 지배의 정당성 마련이라는 목적성을 동시에 드러냈다면, <청루의녀전>은 ‘소설’로 명명될 수 있을 만큼의 서사성은 확보하되, 소설의 말미에 서술자의 직접적인 언술을 덧붙임으로써 독자인 국민을 계몽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⁵⁷⁾ 이는 『대한매일신보』의 편집자들이 소설을 문학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대중을 교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권선징악의 전통적 도덕이나 윤리를 강조”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음⁵⁸⁾을 보여주는 하나

입시켜 기생의 죽음을 작중 인물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십량노침백보상>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격분하여 이를 갈며, 기갑과 손부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갑과 손부 두 사람은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급히 배를 움직이라고 하여, 서로 다르게 도망쳤다. 이갑은 배안에서 천금을 보고 나서, 머리를 돌리면 십량이 떠올라 종일 부끄럽고 후회스러워 울화에 놀려 미친병에 걸리게 되었으며, 종신토록 치료하지 못하고 죽었다. 손부는 충격을 받은 그 날부터 병에 걸려 침상에 누운 지 한 달 남짓이 되자, 종일 두십량이 옆에서 욕하며 책망하여, 숨이 갈딱갈딱하다 죽었다. 사람들은 모두 강물의 보복이라고 생각하였다.” <두십량노침백보상>

56) 최기숙(2014), 앞의 논문, 281쪽.

57) “오락성을 드러냈지만 목적성을 강조하는 소설 쓰기 방식은 이후 『대한매일신보』 등과 같은 민족지에서도 차용한다. 『한성신보』가 친일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였다면 『대한매일신보』 등 민족지에서는 민족적 담론을 마련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김준형(2014), 앞의 논문, 30쪽.)

58) <청루의녀전>뿐 아니라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대부분의 소설이 대중교화의 수

의 예에 해당한다.

그런데 독자를 계몽하는 방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청루의녀전>은 두십랑 고사 속 징벌의 과정마저 생략한 채 비약적인 논리 전개를 통해 독자 설득에만 공을 들이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슬푸고 가련토다 이 미인의 신세여 그 절지와 의기는 가히 천고정열에 부인을 붓그릴 바 업서 후인에 모범이 되려니와 비싱의 위인과 횡스를 보게드면 엇지 가통코 가척치 안으리오 이 썩 강상에서 관광하던 자 닐 아니 차악히 여기며 탄상치 아니흐리오 비싱과 이싱이 쏘흔 어이업고 일변 창황망조호여 각각 도망호여 가니라 <청루의녀전>

기생이 물에 빠져 죽은 이후를 서술하고 있는 위의 인용문을 보면, 『대한매일신보』 <청루의녀전> 작자가 두십랑 고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 수 있다. <두십랑노침백보상>을 비롯한 두십랑 관련 서사들이 적어도 기생을 배신한 남 주인공과 기생을 사려던 상인 등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거나 정신병에 걸렸다는 등의 인과응보식 결말을 맺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두 남성이 “어이없고 일변 창황망조호여 각각 도망호여가니라”라는 서술만을 덧붙인 <청루의녀전>의 결말 처리는 ‘신의 없음’에 대한 문제를 남성 인물을 계도하거나 징벌하는 방식으로 강조하지 않고 여성의 희생과 집심(執心)을 칭찬하는 방식으로 드러내려 한 것이다. 이는 “비싱의 일은 죽히 의론할 것 업거니와”와 같이 배생의 배신을 대수롭지 않게 처리해버리고 여성의 희생만을 부각하여 참가소부와 경박 자제들에게 직접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작자의 서술 방

단으로 인식, 활용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민(2005), 앞의 논문, 107~135쪽.”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식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선행 연구에서는 『한성신보』 속 <비자정절>과 같은 작품이 여종의 행위를 통해 ‘열행’이라는 유가의 이데올로기를 표창하고 있는 듯하지만,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 타락한 조선의 관리들을 비판하고 조선의 생태 공동체를 해체하려는 의도를 내장한 서사적 장치로 읽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타자화시키는 여성 억압의 가부장 논리를 간취할 수 있다고 했다.⁵⁹⁾ 이러한 비판은 『대한매일신보』의 <청루의녀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성신보』는 친일의 논리로 전근대적인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려 했고, 『대한매일신보』는 저항과 민족 계몽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목표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각기 다른 목표 하에서 여성의 희생이 정당화 되고 여성이 타자화되는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루의녀전>은 여타의 수십량 고사 관련 작품들과 달리 기생이 자신의 몸값을 일부러 높게 불러 몸을 더럽히지 않음으로써 ‘비상의 흥점’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을 부연하였다. 또 “비단 주머니 속 개똥”이라는 평을 받는 배생과의 사랑을 위해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인 중국을 떠나 조선으로 떠나나서기까지 했던 기생의 의리와 정을 가볍게 취급하며, 순식간에 마음이 변하여 사람을 매매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것 자체에 대해 별다른 비판을 가하지 않았다. 비상 흥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만큼 중요했던 몸이,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몸과 성으로 그려지는 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문도 제기되지 않는 이러한 모순은, 유가적 이데올로기 안에서 타자화되는 여성의 처지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청루의녀전>에 부재함을 보여준다. <청루의녀전>의 이러한 개작 양상은 계몽담론 속에 여성이 배치되고 위계화 됨에 있어, 여성 소수자 집단이 타자로 고착화 되고 국

59) 김찬기(2013), 앞의 논문, 374~279쪽.

민적 정체성 또한 집단에 따라 상이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근대 초의 경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⁶⁰⁾

5. 결론

<기연중절>과 <청루의녀전>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이들 두 작품이 원작을 밝히지 않은 채 근대 매체에 실렸는데 같은 고사를 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생 혹은 배생으로 불리는 남성 주인공의 배신행위에 직면한 기생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이 ‘죽음’밖에 없는 것일까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기연중절>의 경우 명목상 속신 비용을 이생이 마련하였기 때문에 기생 스스로도 자신을 매매 대상으로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교환 대상의 위치에 놓인 물질로서의 기생이 저항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보란 듯이 죽음을 선택하여 그 사물의 가치를 무화하는 것일 수 있겠다는 점에서 부족하지만 설득력이 있다. 특히나 <기연중절>이 금전이라는 교환 가치에 주목하여 사건을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말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청루의녀전>은 작품 전반에서 금전이나 물질적 교환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생과 기생 어머니, 그리고 주변 창기들의 관계가 가족 관계처럼 묘사되며, 기생이 배생을 따라나선 것도 깊어진 정 때문이지 그가 치른 속신비용 때문이 아닌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실제로 <청루의녀전>에서 배생은 기생의 속신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왜 기생은 배생이 자신을 매매했다는 사실 자체에 문제제기를

60) 박예경, 「아만의 표상으로서의 여성 소수자들 - 『제국신문』에 나타난 첩, 무녀, 기생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9, 2008, 103~138쪽 참조.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죽음이라는 소극적인 저항을 택했을까?

이에 대한 답으로 본 논문에서는 <기연중절>의 경우 이 작품이 이생의 신의 없음과 인간의 사물화라는 조선의 문제적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는 친일 논리를 펴는 과정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또 <청루의녀전>은 민족 계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근대사회의 지배적 논리였던 유가적 이념의 정절 관념을 내세워 기생의 행위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정절과 신의라는 문제를 혼합하여 독자 대중을 향해 직접적인 계도의 목소리를 내려 했으므로 이와 같이 개작하였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두 서사물이 공통적으로 ‘기생’인 작중 인물에 대해 진지한 연민이나 공감의 감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사를 표방한 <기연중절>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소설 <청루의녀전>에서마저 이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한성신보』의 친일적 성향이나 『대한매일신보』의 민족지적 성향 너머에 존재하는 당시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해체되었지만 여전히 관습적, 인식적인 신분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도 바깥에 존재하는 기생이라는 존재가 감내해야 했던 사회적 편견과 불안이 은연중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 더 많은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다루어 볼 계획이다.

참고문헌

- 『한성신보』, <기연증절>, 1986년 11월 30일~12월 2일.
- 『대한매일신보』, <청루의녀전>, 1906년 2월 4일~2월 18일.
-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刪補文苑揜橋』, <負情儂>.
- 풍몽룡 저, 『三言 20 選 譯註』, 장영 편역, 송산출판사, 2011.
- 강현조, 「근대초기신문의 전래서사 수용 및 변전 양상 연구-『한성신보』와 『제국신문』의 공통 게재 서사물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229~278쪽.
- 김영민, 「근대계몽기 단형(短型) 서사문학 자료 연구」, 『현대소설연구』 1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 103~124쪽.
- 김영민, 「한국 근대계몽기 '소설'의 정체성 연구-『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107~135쪽.
- 김영민, 「구한말 일본인 발행 신문과 한국의 근대소설-『한성신보(漢城新報)』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7~44쪽.
- 김영민, 「근대적 문학제도의 탄생과 근대문학 지형도의 변화-잡보(雜報) 및 소설(小說)란의 정착 과정-」, 『사이間SAI』 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9~48쪽.
- 김준형, 「근대 초기 신문의 야담 활용 양상과 고전소설의 변모 -『한성신보』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7, 한국고소설학회, 2014, 5~47쪽.
- 김준형, 「『한성신보』 수재 고전소설의 실상과 향유 양상」, 『고전문학연구』 48, 한국고전문학회, 2015, 65~104쪽.
- 김찬기, 「『한성신보』 소재 야담계 기사(記事)의 서술 시각과 인물 형상」, 『우리문학연구』 38, 우리문학회, 2013, 363~386쪽.
- 류미경, 「두십량의 비극 연구 - 두십량에 새겨진 화폐 표상」, 『중국어문학논집』 86, 중국어문학연구회, 2014, 343~365쪽.
- 박예경, 「야만의 표상으로서의 여성 소수자들 -『제국신문』에 나타난 첩, 무녀, 기생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9, 한국여성문학회, 2008, 103~138쪽.
- 박헌호, 「한국 근대소설사에서 단편양식의 위상 - 단편의 양식적 특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16,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00, 227~261쪽.

- 서은경, 「1900년대 “短篇小說”과 1910년대 “단편소설”에 대한 비교적 고찰-계몽의 후퇴와 주체의 전면화」, 『현대문학의 연구』 31,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215~243쪽.
- 이등연, 「“杜十娘” 고사의 서사 변천 연구(1) -문언 텍스트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중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14, 11, 215~222쪽.
- 이병철, 「개화기 신문의 서사 수용 양상」, 『한국사상과 문화』 41,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29~66쪽.
- 이유미, 「근대초기 신문소설의 여성인물 재현 양상 연구-일본인 발행신문 『한성신보』 연재 서사물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6, 한국근대문학회, 2007, 75~98쪽.
- 이재춘, 「『靑樓義女傳』 > 研究 - 中國小說 『杜十娘怒沈百寶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문학』 50, 한국어문학회, 1989, 249~261쪽.
- 전은경, 「근대 초기 독자층의 형성과 매체의 역할 -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0,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41~74쪽.
- 정영호, 민관동, 「중국 백화통속소설의 국내 유입과 수용 -〈三言〉, 〈二拍〉, 〈一型〉 및 〈今古奇觀〉을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54, 중국인문학회, 2013, 223~251쪽.
- 조동매, 「性, 金錢與死亡 -對《杜十娘怒沈百寶箱》의 三重解讀」, 『中國學論叢』 31,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1, 131~146쪽.
- 조상우, 「경성빈민벽색에 드러난 애국계몽기 시대상과 작가층」, 『민족문학사연구』 30,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06, 171~198쪽.
- 채백, 「《독립신문》 잡보의 내용 및 보도방식에 관한 분석연구」, 『한국언론학보』 35, 한국언론학회, 1995, 5~36쪽.
- 채백, 「한성신보의 창간과 운용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연구』 27,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1990, 109~129쪽.
- 채백, 「대한매일신보 잡보의 내용분석 연구」,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한국언론학회, 2004. 7, 177~196쪽.
- 肖大平, 「杜十娘故事의本事及在韓國日本的接受與改編」, 『중국어문학』 61, 영남중국어문학회, 2012, 333~350쪽.
- 최기숙, 「돈의 윤리와 문화 가치 - 조선후기 서사 문학의 경제적 상상력」, 『현대문

- 학의 연구』 32,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181~218쪽.
- 최기숙, 「‘사건화’ 된 일상과 ‘활자화’ 된 근대: 근대초기 결혼과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 『한성신보』(1895-1905) ‘잡보’란이 조명한 근대초기의 결혼생활 스케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231~285쪽.
- 최용철, 「한국소장 중국소설자료의 발굴과 연구」, 『중국어문논총』 10, 중국어문연구회, 1996, 213~234쪽.
- 한예민, 「〈奇緣中絶〉과 〈青樓義女傳〉의 변안 양상 연구-中國小說 『杜十娘怒沈百寶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29, 돈암어문학회, 2016, 181~199쪽.
- 허순우, 「애국계몽기 국문단편 고전소설집 『오옥기담』의 특징과 의의」,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171~199쪽.

ABSTRACT

A study on narrative about 'Du-shi-niang story(杜十娘故事)' in the newspaper of early modern

— Focusing on adaptation aspects and meanings of
<Gi-yoen-jong-zer(奇緣中絶)> & <Chong-ru-ui-nyo-jon(青樓義女傳)>

Hur, Soon-woo

This paper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episodes on the ground based on the common point of the <Gi-yeon-jung-zer(奇緣中絶)> and <Chong-ru-ui-nyo-jon(青樓義女傳)> of the episode, which is based on the same story as "Du-shi-niang" and is published in modern newspaper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intentions and the times of writers and horses that can be revealed when a work is transformed without being reprinted as it is, through a precedent study interpreting "Du-shi-niang" in connection with sex, money, death, It is because. The study examin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newspaper in which the relevant article is published and the attributes of the published page, and then analyzes the contents delivery method, attitude, and goal of the selected artist in consideration of the orientation of the medium or the nature of the paper Respectively. And I wanted to find meaning that I could read through works that were modified in such a way.

As a result, I saw <Gi-yeon-jung-zer> as a work focused 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logic of pro-Japanese justification of Chosun domination by showing the problematic reality of Chosun, which is the absence of the faith of the main character and the human objectification. In order to attain the goal of enlightening the nation, the <Chong-ru-ui-nyo-jon> modified the works in a novel style. It gives the validity of the act of parasitism by suggesting the idea of the petty ideology which was the dominant logic of pre-modern society, In the process of directing the voice

of the directing toward the audience, it is seen that it is a work that typed the characters and undertook a logical leap.

Key Words adaptation, Du-shi-niang(杜十娘), newspapers of the early modern period, enlightenment, entertainment, chastity, otherization

논문투고일 : 2017. 1.15
심사완료일 : 2017. 2. 5
게재확정일 : 2017. 2.18